

## 에치고쓰마리 아트 트리엔날레

미술관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예술에 푹 빠져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에치고쓰마리 아트 트리엔날레를 방문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는 도카마치와 쓰난마치 일대에서 3년마다 개최되는 야외 현대예술 축제입니다. 축제가 펼쳐지는 지역의 총면적은 무려 760km<sup>2</sup>에 이릅니다!

이 축제는 자연과 공공 공간에 예술을 가져옴으로써 예술, 생태, 커뮤니티의 조화에 대해 탐구합니다. 장소 특정형 설치작품은 자연과 지역사회가 조화를 이루도록 제작되어 풍경의 일부로 녹아듭니다. 논밭이나 골목, 집과 빈집의 외부, 공원이나 정원은 물론 '마쓰다이 노부타이'나 '에치고쓰마리 사토야마 현대미술관(MonET)'과 같은 세계적인 미술관에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첫 번째 대지 예술제가 개최된 이래 약 200점의 상설 작품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연중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예술제 기간 동안에는 추가로 임시 설치 작품들이 더해져, 도카마치는 몰입형 예술의 원더랜드로 변신합니다.

## 혼야라도

이 이글루(눈으로 만든 집)와 비슷한 작은 눈 오두막을 '혼야라도'라고 합니다. 도카마치의 겨울 이벤트 '도리오이(새쫓기)'의 일환으로 만들어집니다.

전통적으로 1월 14일 밤에 열리는 도리오이는 도카마치의 농업과 관련이 있는 전통행사의 일부입니다. 아이들이 마을을 돌며 큰 소리를 내면서 나무 도막을 두드리고, '새쫓는 노래'를 부르며 농작물을 망치는 새를 쫓아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이 수고한 것을 치하하며 떡이나 과자를 나누어 줍니다. 이후 아이들은 혼야라도에 모여 숯불화로에 떡을 구워 먹으면서 받은 음식을 서로 나누고, 늦은 밤까지 눈 덮인 풍경 속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겨울의 북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혼야라도와 비슷한 구조물인 '가마쿠라'를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카마치에서 '가마쿠라'를 '혼야라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새를 쫓는 노래 중에 새를 쫓아낼 때 외치는 구호 '혼야라'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하안단구

시나노 강 양쪽 강변이 계단처럼 솟아 있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평탄한

지형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안단구(河岸段丘)라고 불리는 자연 지형입니다. 약 1만 년 전,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매료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도카마치는 큰 단층선을 따라 위치하고 있습니다. 2개의 지각판이 주기적으로 밀고 당기면서 땅이 종이처럼 구겨졌습니다. 하안단구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약 40만 년 전, 융기한 땅에 강이 흘러들어 수로가 생기면서부터입니다. 또한 지각 변동으로 강 유역이 계속 융기했는데, 물은 항상 저지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강은 그 수로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오래된 강바닥은 남고 새로운 강바닥이 침식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수천 년 동안 반복되면서 오늘날의 단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해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평탄한 토지가 생겼습니다. 오늘날에도 평탄한 토지에는 논과 주택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높은 경사면에는 울창한 숲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일본에서 가장 보존상태가 좋은 하안단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 마쓰노야마 온천

일본은 온천 대국으로 단층과 화산이 많아 곳곳에서 온천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온천의 성분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도카마치의 산골에 위치한 역사 깊은 휴양지 마쓰노야마 온천은 독특한 온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쓰노야마 온천은 일본 3대 약탕 중 하나로 꼽히며, 14세기부터 치료와 휴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온천은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본의 법률에서는 19가지 미네랄 중 1가지라도 기준 함유량을 충족하면 온천으로 인정됩니다. 마쓰노야마 온천은 이 미네랄 중 8가지가 기준치를 충족하며, 그 중에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항진균 및 항균작용을 가진 붕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천수에 포함된 미네랄은 인간 세포 내보다 훨씬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투압 원리에 의해 체내로의 흡수를 돕습니다. 일본에는 ‘온천은 모든 병을 치유하지만, 다친 마음은 치유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마쓰노야마 온천에서 이 말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 니혼슈 제조

니가타현에 다른 어떤 현보다 많은 니혼슈 양조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눈이 녹은 물인 연수, 풍부한 쌀 그리고 술을 빚기에 적합한 좁고 긴 겨울이라는 구조에 중요한 3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중요한 이유는 니혼슈의 약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조공정의 거의 모든 과정에서 물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니혼슈는 깨끗하기만 하면 어떤 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연수(용존 미네랄이 적은 물)는 부드럽고 균형 잡힌 풍미를 만들어줍니다. 쌀 역시 중요한 재료입니다. 일조시간이 길고 평균기온이 약 24.5℃ 전후이며, 밤낮의 일교차가 큰 도카마치의 여름은 벼농사에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또한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의 안정적인 추위는 안정된 양조 조건을 제공하는 동시에 농한기에 접어든 농가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도카마치에는 역사가 깊은 2 개의 양조장이 있습니다. 1896 년에 설립된 마쓰노이 구조와 1873 년에 설립된 우오누마 구조입니다. 니가타의 니혼슈 탐방을 이곳에서 시작하거나 이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